

하라라 12

국제 활동단

Global Youth Action BARAM



KIDS BARAM
Thailand



하라라 12

국제 활동단

Global Youth Action "BARAM"

A Better World for Kids
โลกที่ดีขึ้นสำหรับเด็ก

2012 Summer, Thailand & Korea

Better World

사단법인 더 나은 세상

Better World

사단법인 더 나은 세상

팀 주제

키즈바람 (Kids Baram)



UN이 발표한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Goal2.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유엔이 발표한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Goal2.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으로 인해 개발도상국에서 취학 연령의 89%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초등학교에 등록을 했으며, 초등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 도상국의 문맹률을 낮추고, 빈곤퇴치의 근본적인 해결책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장 추세에도 불구하고, 모든 남녀 아동의 초등교육 전 과정 수료를 지향하는 2015년 목표에는 불충분하게 보입니다.

코디네이터 권혜원 김희원

주제별 팀 권혜원 김희원 이성지 강채원 박나원 권소연
김미지 이대혁 문재선 구창희 박형우 안지연
김기식 조재원 이치우

활동 일정

1일차 (7/23 월)	2일차 (7/24 화)	3일차 (7/25 수)
인천 공방 집결 태국 심부리 숙소로 이동	고아원 둘러보기 교육봉사 (한국어) 마켓 방문	교육봉사 (미술, 영어) 쇼핑몰 방문
4일차 (7/26 목)	5일차 (7/27 금)	6일차 (7/28 토)
교육봉사 (체육활동, 음악)	교육봉사 (체육) 페인팅 생일파티	문화탐방 문화교류 준비
7일차 (7/29 일)	8일차 (7/30 월)	9일차 (7/31 화)
문화탐방 문화교류 준비	페인팅 문화교류 준비 BBQ 파티	페인팅 교육봉사 (미술) 마켓 방문
10일차 (8/1 수)	11일차 (8/2 목)	
페인팅 교육봉사 (미술) 비행기 탑승	한국 도착	

아동교육



페인팅



문화교류



참가후기



Kids
THAILAND

아동교육
Education

CONTENTS

English

Korean

Physical

Drawing

English Class



첫 영어 수업에는 바람 참가자 4명이 지도했고, 다음 수업부터는 점점 줄어 마지막 수업에는 1명이 지도를 하였다. 4학년의 경우 영어로 인사만 겨우 할 수 있었다. 교육 여건은 영어 교재와 교구가 많이 부족한 상태로 보인다. 또한 영어를 가르칠 교사가 부족해 보인다. 태국 아이들이 영어 노래, 게임에 대한 흥미가 높고 수업에 있어서도 열의가 높은 편이다.

내게 기억에 남는 활동은 아무래도 내가 혼자 진행했던 영어 수업이었던 것 같다. 내가 미술을 가르치고 있을 때 코디네이터 선생님이 내게 혼자 영어 수업을 해보라고 권유를 하셔서 혼자 영어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말도 안 통할 것 같아서 많은 고민을 했지만 현지 코디네이터 선생님이 날 도와준다고 걱정이 물러났다. 그런데 현지 코디네이터 선생님께서 갑자기 반을 나가셔서 아이들을 집중하게 하는데 힘이 들었다. 그래도 보람있었다.

Korean Class



현지에서 원해서 즉흥으로 진행된 수업이지만, 반응이 꽤 좋았다. 반응이 좋을 것이라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더 준비해 갔을텐데, 아쉽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참가자들이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참가자들도 현지인들에게 태국어를 배우는 시간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좀 더 가르쳐 주고 싶다. 아이들과 어울리는데 있어 아이들이 모르는 것이 많아 답답함이 밀려왔다. 진작에 이것들을 알았더라면 아이들과 갖는 시간이 더 뜻 깊었을지도 모르겠다.

Physical Education



체육 수업에는 남녀를 나눠 남학생들은 축구, 농구, 원바운드 게임을 했다. 여학생들은 수건돌리기와 우리집에 왜왔니 등 간단한 몸놀이를 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실내에서 팔씨름을 했다. 하루는 체육대회를 열고 모든 아이들과 바람 참가자들이 참여했다.



체육대회에 참가한 학급은 총 4~5반 정도. 체육대회 프로그램에는 이어달리기, 장애물 달리기, 볼링이 있었고, 청팀 홍팀을 나눠 매 게임마다 우승자들에게 학용품을 선물했다.

Drawing



꿈 그리기, 부채 꾸미기, 종이 비행기, 페이스 페인팅, 등의 활동을 했는데, 준비해 간 수업 재료들이 많이 부족했다. 현지 기관에 아이들에게 필요한 도화지, 색종이, 색연필 등 학용품이 많이 부족한 상태였다. 수업에 들어갔을 때 우리 쪽의 준비나 현지 기관의 물품들이 잘 준비가 안되어 있어서 통제도 안되고 어떻게 수업을 이끌어 나갈지 막막했다. 그러나 다시 모여 회의와 계획을 한 후에 여러 활동을 하니 더 재밌고 잘 짜여진 느낌이 들어 만족스러웠다.



자신의 꿈을 그리는 시간에는 아직 자신의 꿈을 진지하게 생각할 기회를 갖지 못한 아이들이 절반이나 되었다. 그 아이들에게 왜 가만히 있냐고 가까이 다가가면 그때서야 아무거나 그리기 시작했다. 가수, 선생님, 군인, 경찰 등이 되고 싶다면 아이들에게는 굳! 이라며 엄지손가락을 내밀어줬다. 아이들이 우리 수업을 들으면서 같이 장난도 치고, 웃고, 즐거워하며 진지하게 수업에 임해주는 모습을 보며 이런 일을 더 오래하고 싶고 아이들을 위해 더욱 많은 일들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페인팅 Painting



회색 시멘트로 된 벽을 우선 흰색 페인트로 칠하고 현지 기관의 요청에 따라 ASEAN 소속의 10개 국가와 한국의 국기를 그렸다. 한쪽 벽마다 2~3명의 단원이 조를 이뤄 작업을 했다. 더운 날씨에 페인트 작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작업이었지만, 벽화를 모두 그리고 나니 뿌듯했다.

Kids are the Future.





문화교류

Culture Exchange



참가후기

Interview

김기식 처음에는 재미없고 힘들 것만 같았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었고 보람되었다. 친구들과도 금방 친해져서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았다. 걱정되었던 부분이 사라지고 재밌고 좋은 추억이 되어서 정말 좋다.

조재원 10일동안 힘든 것도 많았지만 힘들 때마다 태국아이들을 돕고 웃게 해주고 서로 웃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정말 좋았다. 우리 태국팀 단원들도 너무 좋다.

안지연 열흘이라는 시간이 출국하기 전에는 길게만 느껴졌는데, 마지막날이 다가올수록 이제 친해지기 시작했는데, 하며 아쉬웠었다. 그리고 '봉사' 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막상 해보니 그리 어렵지 않고, 힘들어도 그만큼 기억에 남고, 추억이 되고, 뿌듯함이 된다. 그리고 다시 또 하고 싶은 일이 되어버렸다.

권소연 10일동안 힘들고 더웠을텐데 마지막까지 모두 웃으며 행복했던 것 같다. 내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태국에서 잘 지낼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기분 좋았다.

김미지 감사한 것은, 또 새로운 인연을 만났다는 것이다. 태국이라는 큰 그 곳에서도 인연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단원 아이들이 힘들었을 텐 데 그 속에서 배움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치우 10일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 아쉬움이 많다. 또 여자 단원들과 친해지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는다. 그리고 지금 현지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다.

이성지 매번 문제나 일이 있을 때 의견이 잘 맞지 않고 눈치도 없고 같이 힘든 점이 있었다.

강채원 우리를 이끌어주신 2명의 코디선생님들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이제 현지 아이들을 못볼 생각이 지금 보고 싶고, 11일 동안 어리광부린 나를 챙겨주고 같이 활동한 언니 오빠들에게 고맙고 벌써 그립다.

이대혁 우선 고아원에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어 보람 있었고,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태국 어린이들이 너무 대견했다. 태국친구들이 그립다.

구창희 모두 정말 수고 많이 했고 다음 참가자들은 보드마커를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다.

박나원 같이 고생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다녔는데 많이 못 친해진 것이 아쉽다. 기간이 좀 더 길었더라면 더 재미있는 태국 생활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